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9년 7월 14일(주일) 제1254호



“성령의 바람 온 세계 위에”

전도, 캠프, CGNTV 안테나 설치 등 여름사역 한창 온누리신문, 여름사역 후기 및 사진 공모전 실시

2019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가 한창이다. 해외 189개 팀 3411명, 국내 170개 팀 5285명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온 세계 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구슬땀 흘리고 있다.

2019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에는 성인공동체 해외 85개 팀 1830명, 국내 74개 팀 3664명, 대

학청년부 해외 47개 팀 712명, 국내 77개 팀 1240명, 차세대 해외 17개 팀 308명, 국내 17개 팀 347명, 의료선교팀 CMN(Christian Medical Network) 180명, 예수제자학교 415명이 참가한다. 주요 사역은 전도, 차세대 캠프, 빈민사역, CGNTV 안테나 설치, 어르신 섬김사역, 마을잔치, 어린이 캠프

등이다. 올해 여름사역은 사역팀의 장점을 살려 복음 전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전 온누리교회 여성사역팀은 일본 에대가와 사랑의 교회에서 '성경적 아내 교실'을 열었고, 2000선교 ON편지팀은 편지뿐만 아니라 러시아 선교사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교제했다.

온누리신문에서 '2019 여름사역 후기 및 사진'을 공모하고 있다. 올해 여름 성인공동체, 차세대, 대학청년부, 각 사역팀 아웃리치 및 차세대 여름 캠프 등에서 받은 은혜를 담은 간증문과 사진(사

역 장면 담은 사진 원본)을 매주 화요일 오후 3시까지 이메일로 보내면 7-8월 온누리신문에 게재해준다. 원고량은 A4용지 1장(글자크기 10포인트)이고, 사역 장면이 담긴 역동적 사진과 간증을 쓴 성도의 얼굴 사진을 보내면 된다.

내용: 아웃리치 및 캠프 후기 및 사진

원고량: A4용지 1장(글자크기 10포인트)

문의: 02-3215-3194

보내는 곳: onnuraweekly@gmail.com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대학청년부, 'FA 17기' 참가자 모집

1차 7월 18일, 2차 7월 25일

대학청년부 'FA 17기' 참가자를 모집 한다. 서류마감은 1차 7월 18일(목), 2차 7월 25일(목)이다. 지원 자격은 온누리교회 등록교인(1년 이상)이자 대학청년부 공동체 6개월 이상 소속된 청년으로 35세 이하(85년생 이하), 미혼, 세례교인, 해외거주 결격사유 없는 자, 공동체에 헌신되고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성도다. 구비서류는 허입신청서, 추천서 3부(온누리교회 목회자, 공동체리더십, 지인), 가족관계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종합건강검진서(유효기간 3

개월 전)이다. 종합건강검진 지정기관은 하나로 의료재단이고, 검사비용은 개인부담(기본검진 6만원)이다. 참가신청 양식은 두란노해외선교회 홈페이지(www.timor.kr)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다음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면접은 1차 7월 27일(토), 2차 8월 2일(금) 실시할 예정이다. 오리엔테이션은 8월 3일(토) Acts29비전빌리지에서 진행된다. 합숙 훈련은 8월 12일(월)부터 9월 5일(목)까지 실시된다. 훈련비용은 40만 원이다.

문의: 070-4464-8105, fa@tim.or.kr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안전관리위원회가 제안하는 여름철 '건강 및 안전관리' 요령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건강 및 아웃리치 안전관리' 요령을 제안했다.

안전관리위원회에서는 여름철 대표적인 질병 식중독, 일사병, 냉방병 등을 소개하며, 그 예방법으로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생활화를 제안했다. 또한 충분한 수분섭취와 실내 에어컨 적정 온도(25~26도)를 유지해서 일사병과 냉방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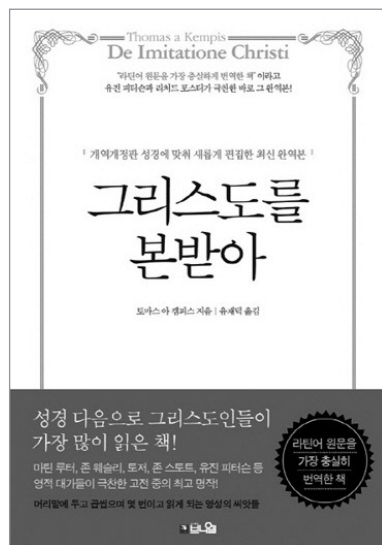
국내외 아웃리치 안전관리 요령도 제안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 최우선임을 거듭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국내 아웃리치 숙소 및 행사장 시설 점검, 해외 아웃리치 현지 정보와 문화 숙지, 위기 혹은 돌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 줄 현지 협력기관에 대한 점검 등을 제안했다. 보험가입(운전자 보험, 여행자 보험)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13면>.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책 읽어주는 목사

고난 중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 켐피스 저 | 브니엘 | 10,000원

내게는 이 책이 단순한 책이 아니다. 내 삶의 이전(before)과 이후(after)의 획을 그어 준 도구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사노라면 파도를 만난다. 고난이다. 교회에서나 학교에서 모두 모범생으로 성장하던 내게 다가온 파도는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내 희망이나 예상을 넘어서는 충격이었다. 비윤리와

타협할 수는 없었고 결국 젊은 시절의 이런 저런 꿈들이 꺾였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아주 긴 시간 침묵하셨다. 외관상의 실패의 연장선에서 마치 도피자의 행로처럼 나는 단신으로 뒤늦게 유학의 길을 선택했다. 떠나기 전 당시 내가 다니던 교회의 부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이 바로 이 책이다. 80년대 초 우리 사회가 요즘처럼 온통 들쭉거리던 때 심판을 예언하는 책도 아니고, 사회정의에 대한 책도 아니고, 영성생활에 관한 책이었다.

연고도 없고 한국 사람도 별로 없는 미국 지방의 대학을 다니며 매일 이 책을 한 페이지씩 읽었다. 간혹 짧은 잠언 같은 말씀에서는 읽는 속도가 일주일에 한 페이지였던 것 같다. 영적 생활이란 무엇인지, 예수님은 누구인지, 왜 그를 따라야 하는지, 왜 겸손해야 하는지, 내 분노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아주 천천히 차근차근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 책은 영혼의 이유식이다. 세상에 속해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훈련된 내게 새로운 언어를 배우게 한 책이다. 조금씩 오물거리며 생각의 방향을 만들고, 조금씩 이빨로 깨어 물기도 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한 책이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예수 믿으면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서 축복받고 누리며 산다는 정도만 알았을 뿐이다. 자신을 부정해야 하는 이유도, 십자가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도, 십자가 이면의 영적 풍성함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계획도 모두 알지 못했다. 영적인 눈이 뜨이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인다.

나는 내게 피해를 준 사람을 향한 분노를 쉽게 가라앉히지 못했다. 하지만 책을 읽고 묵상하면서 어느덧 분노는 사라지고 용서가 아주 조금씩 자라게 되었다. 사실 말씀 적용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용서였다. 정의를 위해서 남에게 해를 입히는 부정함은 배척되고 제거되어야겠지만 그 시행은 하나님의 몫이다. 정의를 부르짖음이 교만인 이유는 그 정의의 수행이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이다. 예수를 닮는다는 말은 하나님처럼 심판자의 자리에 뛰어올라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임을 배웠고 그 진리를 받아들였다. 비록 마음 속 깊은 곳까지 완전한 적용에는 미달이었더라도 말이다.

이 책은 복음의 가장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을 잘 풀어서 이유식이 필요한 영적 유아들에게 공급해주는 책이다. 교회생활에 익

숙함이 신앙이 아니다. 그리스도와 친밀함이 신앙이다. 사역 현장에서의 열심은 자칫 하나님을 제친 자기중심적 열심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태도가 중요하다. 부르심은 끊임없이 재확인되어야 한다. 직분을 받아 스스로 뭔가 된 것 같이 생각될 때마다 자기중심적 생각을 내려놓고 누가 주인인지, 나는 누구인지를 각인해야 한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만 민감해야 한다. 생각의 초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겸손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등이다.

나는 이 책을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추천한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이 부르심에 따라 사는 길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임을 확실하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다. 내 손에 물질이 없어도, 건강이 나빠져 가더라도, 나를 에워싼 상황이 더 내려가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이 내 모든 것임을 고백하고, 주님 때문에 즐거워한다. 마치 하박국 3장 17-19절 말씀처럼.



최승구 목사
(가정사역공동체)



Q 4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교회에 가면 제가 누리는 자유가 없어질 것 같아요”

“자유롭게 살고 싶는데 크리스천이 되면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을 빼앗기고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생각이 있으시군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 완전 오해였어요. 그 분이 제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자유와 즐거움을 주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32)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우리를 어떻게 자유하게 하셨는지 말씀 드려도 될까요?”

요즘 청년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때문에 매주 일정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진로와 취업문제 등으로 몸과 마음이 분주해서 여유가 없다. 교회에 다니면 시간이나 물질 등 많은 부분을 손해보고, 그나마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못하며, 구속 받아 자유도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장년들도 교회에 다니면 즐기는 술과 담배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일요일에 놀러 다니지도 못하며, 희생당하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이 시대는 서로 간섭하지 말고,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며, 자유롭게 살자는 경향이 있어서 과거보다 전도가 어렵다. 그러나 자유에 대한 그들의 편견과 오해를 벗겨주는 올바른 복음을 전한다면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최적의 기회로 돌릴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게 살고 싶은 갈망을 가지고 있다. 누군가의 종이 아니라 자유자로 살고 싶은 몸부림의 반증이다.

과거에 은혜 받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어도 지금 예수님과 친밀해야 심심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 주시기 위함”(히 2:15)이며, 나를 사랑하셔서 죄의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고, 세상 집에 눌러있는 나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사실에 날마다 감격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먼저 말씀을 선포하면 생기가 넘쳐나고 자유함이 생긴다. 내 안에 생기 있는 심심한 복음이 가득차야 복음을 전하기 쉽다.

나는 매주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문화의 거리 대학로에 간다. 남들 눈치

안보고 살면 나다워진다는 듯 자유분방하게 거리를 활보하는 청년들, 골목에서 삼삼오오 모여 담배연기를 뿜어내는 청년들에게 다가간다. 쾅대 소리를 듣지 않을까 두려움도 있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다니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인다. 그들에게 “연극을 보면 관객일 뿐이지만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나면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라고 하면 마음을 열고 전도지를 받아 유심히 본다. 나는 청년들에게 “세상이 주는 쾌락이나 달콤함은 일시적으로 행복감을 느끼게 하고, 자유로워지는 것 같지만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깊은 절망에 이른다. 그러나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나의 존재 이유와 삶의 기쁨이 넘쳐서 자유하게 된다”고 복음을 전하며 젊은이들을 위한 예배로 초청한다.

최근 50대 초반 직장인을 만났다. 그는 내게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면 모처럼 술도 마시고, 가족들과 놀러가야 하는데 교회에 나가면 이 쥐꼬리만 한 자유조차 못 누리잖아요?”라고 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인간은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일

에 묶이고, 물질에 묶이고, 관계에 묶이고, 무엇보다 죽음으로부터 묶여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분이 나 대신 죽음으로 내 죄를 용서 받았고, 그 분이 부활하심으로 나를 죽음에서 자유하게 하셨어요. 쥐꼬리만 한 자유가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긴 놀라운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 얼굴을 보니 진짜 같이 느껴집니다”라면서 복음을 받아들였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과 자유롭게 사는 것은 다르다.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자유롭고 안전하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32).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



박인숙 권사
(신용산공동체,
〈전도여왕의 전도레시피〉
저자)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7가지 치명적인 죄(3)-분노

민수기 20:7~13

하나님의 분노가 선하고,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분노가 인내와 용서와 친절과 긍휼,
노하기를 더디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야 합니다.

평소에 별로 분노하지 않는 분들은 분노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왜 분노가 7가지 치명적인 죄로 분류되는지 이해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에 자주 분노하시는 분들은 분노가 7가지 치명적인 죄로 분류되었다는 것 자체에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분노가 7가지 치명적인 죄로 분류된 이유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분명히 감정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분노의 본질은 단순히 불쾌한 감정이 아닙니다. 분노의 본질은 도덕적인 가치판단입니다. 인간이 분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도덕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선택할 수 있으려면 무엇이 중요한 문제가 옳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대해 반대하거나 거절하고, 반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분노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넣어주신 중요한 기능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분노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안에 넣어주신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서 옳지 않은 것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의 뿌리는 하나님과의 사랑관계입니다. 그 목적은 거룩이요, 정의입니다. 분노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선으로 나타납니다.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질서이자 본질입니다.

선한 분노와 악한 분노의 공존

인간이 최초로 분노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속이는 뱀이 나타났을 때 분노해야 했습니다. 뱀을 돌려쳐 죽였어야 합니다. 만일 그랬더라면 최초의 살생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뱀을 죽인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뱀의 거짓에 대해 저항했다면 인간은 계속 하나님의 창조질서대로 선하게 분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백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선하고 정의롭게 분노할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뱀에게 속아 넘어갔고, 악하게 분노하는 방향으로 왜곡되어 갔습

니다.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지 않았기에 분노하지 않아야 할 때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지 않으면 분노하지 않아도 될 때 분노가 일어납니다. 분노의 왜곡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는 선한 분노와 악한 분노가 공존합니다. 어떤 분들은 “분노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다. 가치중립적인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분노를 낙관적으로 봅니다. 선한 측면만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노든지 표출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럴 자유와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반면 분노를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은 “어떤 것이든 악하다”고 합니다. 분노는 선하거나 악합니다. 아니면 선과 악이 공존 혹은 혼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선한 분노입니다. 사탄의 분노는 악한 분노입니다. 우리 안에는 분노가 어느 한쪽이 아니라 혼재되어 있고, 일반적으로는 악한 분노로 치우쳐 있습니다. 선한 동기로 시작된 선한 분노라 할지라도 그 분노를 표현하면서 악하게 흐르기도 합니다.

분노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기질과 성격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저 분은 결코 화를 내는 일이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분노가 있습니다. 한 번도 분노한 적이 없어 보이는 어떤 점잖은 분을 보면서 그분의 아내에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화내지 않는 분과 사셔서 참 좋으시겠어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한번 살아보세요”라고 합니다. 화를 내지 않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분노를 억누르거나 숨기거나, 무관심하거나, 혹은 남몰래 자신의 방법대로 분노를 해소하고 있을 뿐입니다.

분노는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분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고, 사회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미국의 어느 가정에서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총격전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권총을 들고 2층에서, 아내는 거실에 소총을 들고 총을 쏘아서 지역 사회가 발각 뒤집혔다고 합니다.

선한 분노와 악한 분노 분별하는 세 가지 중요한 질문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가 선한 분노인지 아니면 악한 분노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악한 분노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끊어내야 합니다. 선한 분노라면 끝까지 선한 분노로써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늘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첫째, 분노의 동기가 이기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나를 넘어서는 문제인지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원죄 가운데 하나님 반대편에서 이기적으로 분노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가 나의 문제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속한 것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둘째, 분노의 동기가 이기적이지 않더라도 내용이 십계명에 합당한 것인지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십계명에 어긋났을 때 분노하십니다. 우리의 분노가 십계명을 기준으로 위반되는 상황에 대해 일어난다면 선한 분노입니다. 그러나 십계명과 전혀 상관없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면 이기적인 분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100% 이기적일 것입니다.

셋째,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방식인지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노를 하십니다. 그 선한 분노를 표현하실 때도 거룩하신 성품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시 145:8-9).

하나님의 분노가 선한 분노인 이유는 정말 악한 것에 대해서만 분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악에 대해 분노하실 때도 노하기를 더디 하십니다. 마땅한 분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 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가 더디 일어나는 분노인지 아니면 강렬하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분노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분노의 표현방식도 긍휼과 인내와 용서로 표현되는지, 아니면 조금도 긍휼이 없이 표현되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분노는 언제나 긍휼과 용서가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마땅한 진노가 임할 때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일어나는 악한 분노는 용서가 없습니다. 긍휼이 없습니다. 노하기를 더디 하지 못합니다. 억제하지 못합니다. 악한 분노입니다. 선한 분노는 동기가 선할 뿐 아니라 방식도 선합니다. 인내와 용서와 긍휼과 친절로 대하며 노하기를 더디 합니다. 그 분노가 이루어질 때 회개와 거룩함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우리 분노는 언제나 급합니다. 인내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복수심에 불타오르기 때문에 선한 분노로 시작할지라도 점점 악한 분노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작이 선했

다 할지라도 결말이 선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선한 분노로 시작했음지라도 분노가 나의 죄성과 합해져서 점점 악하게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인내와 용서와 긍휼과 친절이 하나님의 선한 분노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아니면 복수와 저주로 진행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모세의 분노가 큰 문제인 이유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모세의 분노를 주목해야 합니다. 모세가 분노함으로써 하나님께 책망 받을 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수고한 모세에게 너무 가혹한 징벌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모세의 분노를 이처럼 큰 문제로 보셨는지를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노의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방황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와 있던 때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출애굽 1세대들의 반역으로 인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이 있었던 곳입니다. 방랑의 기간을 거치고 그곳에 도착한 백성들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1세대들이 불평했던 것처럼 그들도 여전히 불평합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너와 네 형 아론은 저 회중을 모아라.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저 바위에다 말하면 그것이 물을 낼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위해 물이 바위에서 나오게 해서 회중과 그들의 가족들이 마실 수 있게 하여라”(7-8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불평하는 백성들에 대해 진노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물을 주심으로 마실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본문과 비슷한 상황인 출애굽기 17장에서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불평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호렘산에 있는 바위를 쳐서 물을 마시게 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과 비교해 보면 물을 주시는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르비딤에서는 바위를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라고 하였고, 오늘 본문에서는 “지팡이를 들고 바위에 말하여(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13면에 계속)

기획_크리스천과 품성 시리즈

1. 신앙은 품성으로 드러난다 2. 온라인에서도 지켜야 할 품성 3. 당신의 말에 숨어있는 품성

품성은 온라인에서도 보인다!

온라인도 결국 사람과 사람의 연결 ... ‘네티켓’을 지키자! 응원 댓글 달아 격려하는 ‘선플’과 ‘릴레이 감사일기’ 제안

‘네티켓’이란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네트워크’와 ‘에티켓’의 합성어다. 인터넷과 SNS 등 온라인에서 지켜야 할 예절을 총칭하는 말이다. 온라인 공간에서 지키고 보여야 할 우리들의 품성을 지칭한다. 일상(오프라인)에서 예절과 매너를 지키듯이 온라인 세상에서도 좋은 품성을 보여주고 예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평소에는 선하고 품성 좋은 지킬 박사였다가 온라인 세상에만 들어가면 난폭하고 악을 행하는 하이드가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크리스천들이 사용하는 온라인 세상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순, 다락방, 공동체 등 다양한 교회구성원들이 어울리는 SNS에서 차마 말은 못했지만 눈살 찌푸린 적이 한두 번쯤은 있을 것이다.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네티켓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대한민국 전체 1,952만 가구 중에서 1,943만 가구(99.5%)가 인터넷을 사용한다. 인터넷 이용자 수 4,528만 명, 스마트폰 이용자 5,011만 명(국내 이동통신 3사 기준),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 5시간 14분, 한국인 1인당 하루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3시간이다. 더 이상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다양한 정보 습득은 물론이고, 쇼핑, 정보 공유, 취향 과시, 관계망 확장 수단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온라인을 이용하고 있다. 얼굴을 직접 마주하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상공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어폭력 혹은 비매너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부작용도 있다.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헐뜯는 내용의 댓글(악플),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사이버 명예훼손이 가져 온 비극 마음의 큰 상처에서 극단적 선택까지

“우리는 가족의 시신으로 보상금 장사를 하려는 게 아니다. 참사에서 겨우 살아남은 부상자가 치료받을 수 있기를 원할 뿐이다.”

지난 4월 일어난 진주 방화살인사건으로 한 순간에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잃은 유가족들이 일부 누리꾼들의 악플로 또 한 번 눈물을 흘렸다. 가해자의 이상행동을 수차례 신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과 부상당한 가족들이 완치 될 때까지 치료비 전액을 요구한다는 언론보도가 전해지자 일부 누리꾼들이 “또 국가타령이냐”, “보상금을 노리고 발인 미루는 것 아니냐”며 악플을 달았기 때문이다. 이 악플로 유가족과 부상당한 사람들이 또 한 번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어디 이뿐인가. 악플에 시달리던 한 여고생이 목숨을 끊은 일도 있었다. 지난 2007년 SBS 인기 예능 프로그램 ‘스타킹’에 출연한 한 여고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 여고생은 체중을 40kg 감량하고 방송에 출연했는데 당시 패널로 출연했던 아이돌 멤버와 찍은 사진이 화근이 됐다. 그 아이돌의 팬들이 이 여고생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사이버 공격을 가했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다.

연예인들의 피해 또한 매우 심각하다. 가수 유니, 텔런트 정다빈, 최진실 등도 루머로 인한 악성 댓글에 괴로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와 같은 사이버 명예훼손(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인격, 신분 등의 사회적 평가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히는 일) 사건이 최근 5년 동안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 2월 발표된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접수된 사건은 1만 4661건으로, 2014년 7447건에 비해 두 배나 늘었다. 일반 명예훼손 사건이 지난 5년 동안 연 1만5천건 수준임을 감안하면 사이버 명예훼손이 일반 명예훼손 건수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가 심각해지자 최근 법원에서는 처벌 강도를 높였다. 악플을 다는 것만으로도 최대 3년9개월까지 징역형을 줄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무심코 혹은 재미로 비방댓글이나 악플을 달았다간 큰 코 다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천태만상 無개념, 無동의, 無예절, 폭력

온라인 공간에서의 비매너와 무개념 행동은 악플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박현민 형제(비신자, 29세)는 얼마 전 지인이 보낸 메시지를 받고 몹시 불쾌했다.

“지인이 자주 게임 광고를 보내더라고요. 게임하다가 하트가 모자라니까 연락처가 링크된 사람들한테 무심코 보내는 것 같아요. 문제는 평소에 연락도 잘 안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부 인사도 없이 갑자기 광고성 문자가 오니까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없던 정까지 뚝 떨어지더라고요.”

김유정 자매(타교회, 28세)는 SNS 단체 채팅방을 이용하다가 불쾌한 일을 겪었다.

“아는 오빠가 아무 말도 없이 저를 단체 채팅방에 초대하더라고요. 그 채팅방에는 저랑 관계가 불편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솔직히 당장 나가고 싶었지만 채팅방에 있던 사람들이 왜 퇴장했냐고 물어볼 것 같고, 또 초대한 오빠 체면도 있고 해서 못 나가고 있어요. 단체

채팅방에 초대할 때는 그 사람에게 먼저 의사를 물어보는 게 기본 매너 아닌가요?”

상황과 기본예절에 어긋나는 단어(은어, 줄임말 등)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도 문제이다.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ㅋㅋ”(웃음), “ㅇㅇ”(응)과 같은 약어를 사용하는 것도 예의에 어긋난다. K교수(38세)가 이에 대해 한소리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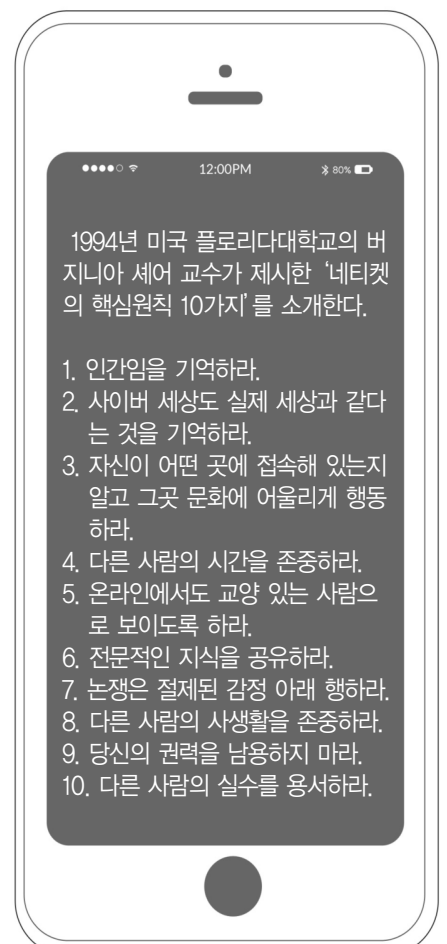
“학생들이 성적이 궁금하고 걱정돼서 교수한테 연락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너무 늦은 시간에 연락해서는 친구들에게나 보낼법한 이모티콘 등으로 대답을 대신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불쾌하더라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가상공간에서 폭력이 행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이라는 학교폭력이 유행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괴롭힘을 뜻하는 말인데,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는 친구를 단체 채팅방에 초대해서 무작정 욕설을 퍼붓고, 피해 학생을 촬영한 영상으로 조롱하고 수치심을 주는 행동이다. 사이버 불링 피해를 입은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일이 있어 우려된다.

이처럼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품성 좋지 못한 행실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 네티켓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의 네티켓이 한 사람을 살리기도, 죽일 수도 있다

아무리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가상공간이라고 해도 그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까지 가상이다. 결국 온라인도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다. 이에 따른 예절이 필수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은 상식이다. 단체 채팅방에 누군가를 초대할 때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게 우선이다. 또한 단체 채팅방의 목적과 상관없는 글이나 몇몇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친분 과시용 글은 비매너이다. 상대방과 직접 마주하지 않거나 상대방을 모르는 상황에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환경의 특성을 잘 살펴야 한다. 표정이나 제스처를 통해 알 수 있는 비언어적 표현이 배제된 상태에서 오가는 표현과 글은 자칫 오해나 불쾌감을 불러일



킬 수 있다. 댓글이나 게시글을 올릴 때는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

선플(긍정적인 평가를 하여 쓴 댓글)과 릴레이 감사일기 쓰기를 실천해보는 것도 좋다. 용기와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의 SNS에 응원 댓글을 달아 격려하는 운동이다. 하루 동안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묵상하고, 그것을 SNS에 공유하는 것도 좋다. 감사일기를 써줄 다음 대상자를 선택한 다음 해시태그(#)를 달아서 감사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면 더욱 좋다.

이제는 일상 예절 못지않게 온라인 예절이 중요해졌다. 무심코 올린 댓글과 게시글, 단체 채팅방에서의 적절한 의사소통 태도가 그 사람의 품성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우리의 네티켓이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고, 위로를 줄 수도 있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기고

SNS에도 품성이 있다!

우리가 꼭 갖춰야 할 ‘SNS 품성’과 ‘매너’



김수민 권사
(동대문중랑공동체,
칼럼니스트,
홍보대행사 대표)

현대인들을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 스마트폰 없이 살기 어려운 사람을 일컫는 신조어)라고 부를 만큼 우리는 휴대폰 없이 생활하기 힘들어졌다. 휴대폰을 자신과 세상을 연결하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 최근 출간된 <콘텐츠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에 나타난 와이즈앱 조사(지난해 3월 기준)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유튜브 사용 시간 257억분, 카카오톡 179억분, 네이버 126억분, 페이스북 42억분이다. 모바일에서의 콘텐츠 소비 성향이 텍스트와 이미지에서 동영상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요즘 사람들은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틱톡, 위챗, 라인, 밴드 등 SNS 미디어를 통해 콘텐츠를 생산 및 소비하고 있고, 반응과 공유를 통해 새로운 생태계를 형성한다. 유튜브에는 1분마다 72시간 분량의 동영상이 업로드 되고, 페이스북에서는 사용자가 300만 개의 콘텐츠를 공유하며, 매일 23만장의 사진이 인스타그램에 게재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과 소셜미디어는 생물처럼 움직이고 확장되고 있다. 유통, 쇼핑, 금융과 핀테크, 교통, 의료, 엔터테인먼트와 방송까지 온스톱 서비스로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이에 따라 SNS에서도 갖춰야 할 품성과 매너가 요구된다.

크리스천 SNS 사용자 유형과 매너

SNS 사용자 중에는 다른 사람이 올리는 콘텐츠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방관형, 올리는 내용마다 읽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좋아요’와 ‘아멘’으로 화답하는 두루뭉술형,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분노하고, 심지어 내쫓는 독재자형, 반대로 본인이 나가버리는 소심형, 열심히 목사님의 설교를 퍼다 나르며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형, 틈만 보이면 자신이나 제품에 대해 홍보하는 틈새시장형, 밤늦게까지 콘텐츠를 올리는 올빼미형, 프로필 사진에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숨기는 가면형 등이 있다.

SNS 단체 채팅(단톡)방이나 밴드에 상대방을 초대할 때는 미리 개인 메시지로 그 모임의 성격을 얘기해주고 동의를 얻은 다음 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 운영자는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자신의 지인들을 일방적으로 단톡방에 모아놓고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놓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모르는 사람들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 있는 게 불편해서 바로 빠져나가기를 한다.

단톡방에서 경조사 등 중요한 공지를 올리거나 전체 의견을 묻는 글이 올라와 있을 때 그에 대한 댓글이 충분히 달리기도 전에 전혀 상관 없는 글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붙인 댓글들이 도대체 어떤 내용에 대한 의견인지 동문서답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이 경우에는 공지나 상대의 글을 길게 누르면 ‘복사, 삭제, 답장, 전달’의 메뉴가 뜨는데, ‘답장’을 클릭해 의견을 달면 소통의 혼선을 줄일 수 있다. 시간 에티켓도 중요하다. 밤 10시가 넘어 가면 급한 공지가 아닌 이상 다음 날로 미뤄야 한다. 특히 해외 동포들이 모여 있는 단톡방에 시차를 고려하지 않고 본인의 얼굴이 나온 행사 사진들을 수십 장씩 올리는 경우가 있다. 묵음 처리를 해놓지 않으면 잠이 다 깬다. 사진은 본인한테나 중요하지 다른 사람들한테는 공해다. 또 새벽잠이 없는 분들이 아침 5시부터 메시지를 보낼 때가 있는데 가능한 오전 7시 이후에 올리는 것이 SNS 예의다.

지인 중에 소상공인 단톡방을 운영하는 분이 있다. 이 회장님은 카리스마가 넘쳐 평소 눈팅(인터넷상에서 게시판에 글을 쓰거나 댓글을 달지 않고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것만 하고 댓글을 달지 않는 회원들을 용서하지 않는 품성의 소유자다. 아침마다 “출책(출석 체크) 1번, 출책 2번, 출책 3번...”을 외치며 회원들이 단톡방에서 스스로 출석체크를 하게 한다. 이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단호하게 퇴장시킨다. 정말 피곤한 리더지만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은 거부할 수 없어 열심히 따르는 분위기다. 이런

게 구성원들을 내쫓는 독재자형 품성의 리더가 있는가 하면, 차라리 본인이 나가버리는 소심형 품성의 리더도 있다. 얼마 전 유튜브 영상을 함께 찍는 한 동호인 단톡방에서 있었던 일이다. 어렵게 섭외한 장소를 여러 번 공지했는데도 다른 회원들의 반응이 미온적이라 갑자기 리더가 단톡방을 나가버렸다. 모든 계획에 차질을 빚는 황당한 일이었다. 불특정 다수가 모인 단톡방에서는 아무 말 없이 나가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으나, 친한 지인들끼리 모인 방에서는 일단 설명을 하고 나가는 게 피차에 상처를 남기지 않는다.

크리스천들이 지켜야 할 SNS 예절

크리스천 단톡방의 특징이 있다. 아침마다 은혜로운 설교 말씀이 텍스트나 영상으로 올라올 때 형식적인 답변으로 경직된 분위기를 형성한다는 점이다. 누가 큐티나눔을 올리면 가끔은 그 내용에 대해 한 줄이라도 공감 댓글을 달아주면 좋는데 그냥 “아멘”만 줄줄이 달린다. 물론 그것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낫지만, 이 “아멘”이 영혼 없는 멘트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페이스북 게시물에 읽지도 않고 무조건 ‘좋아요’를 누르거나 코멘트를 달지 않고 링크만 공유하는 것도 좋지 않다.

크리스천들도 때로는 사람 냄새 풍기며 편안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게 좋다. 오로지 “아멘” 뒤에 자신을 숨기고 거룩한 이미지만 유지하려는 경향은 바람직하지 않다. 심지어 묵표한 사역을 위해 힘을 모으고 움직여야 하는데, 공지사항에는 답변도 하지 않고 모임에도 나오지 않고 협조도 하지 않으면서 매일 미사여구를 담은 장문의 기도문만 단톡방에 올리는 사람도 있다. 이는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마치 긴 옷을 입고 길거리에 서서 남들이 듣도록 큰 소리로 기도하는 대제사장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다. 기도는 외식(外式)하지 않고 은밀하

게 골방에서 주님께 하는 편이 낫다.

SNS에서 좋은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경외감을 느낄 때가 있다. 그러나 열심히 콘텐츠를 퍼다 나르는 사람들이 진솔하게 자신의 깨달음이나 간증을 나눠주면 더 좋으련만, 매일 아침 인공지능 로봇같이 여기저기에서 목사님 메시지만 퍼 나르는 모습을 보면 솔직히 답글을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 “너나 잘 하세요”라는 말이 절로 튀어나온다.

나도 SNS를 통틀어 2만 명의 친구와 팔로워들이 있다 보니 돌고 도는 동일한 콘텐츠를 자주 만난다. 감사하게도 아침마다 성경말씀이나 묵상, 설교를 보내주는 분들이 많다. 솔직히 읽을 시간이 부족할 정도다. CCM을 첨부해서 보내주시는 한 선배님의 짧은 콘텐츠 외에는 주기적으로 전체 삭제를 하고 있다. 제발 그만 보내라고 말하고 싶지만 혹시나 상처받을까봐 꺼낼 수가 없다.

선교사님들이나 사역자들 중에 상대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매일 말씀을 보내주다가 기도 제목과 함께 헌금을 요청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지만 그건 감동을 주시는 대로 자신이 결정하면 될 일이다.

카톡 프로필 사진이 없어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는 분이 매일 말씀과 사진을 보내주기에 궁금증을 참고 있다가 한 답글 지난 뒤 “실례지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우리가 어디서 만났었나요?”라고 문자를 보낸 적이 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어떻게 자기를 기억 못할 수가 있냐며 화를 내더니 그때부터 내 메시지를 차단해 버렸다. 아마 복음방송 재직 시절 만난 목사님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죄송하기는 했지만 솔직히 속이 후련했다. 가능하면 카톡 프로필에는 본인의 사진을 올리는 게 좋다. 할 말이 많더라도 단톡방에서는 공개적인 논쟁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모임이 깨지는 단초를 만들지 않기 위함도 있지만,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 앞서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침묵하거나 움직이기 때문이다.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끌고 와 예수님을 시험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누구든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긍휼(公愍)과 지혜가 우리의 SNS 품성에 스며들도록 노력해야겠다.

예수님의 긍휼(公愍)과 지혜가
우리의 SNS 품성에 스며들도록 노력해야겠다.



진짜 멋진 만남, ‘청년과 멘토’

멘토는 삶으로 보여주는 스승, 경험을 나눠주는 아버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 팍팍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청년들이 꼭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다. 인생 선배들의 경험담이다. 그만큼 살아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시대 청년들은 인생 선배들의 경험담을 들으려고 그들의 강의를 찾아보기도 하고, 서적을 구입해서 읽기도 한다. 그렇게 만난 인생 선배들의 말 한마디라도 놓칠까봐 빼곡하게 메모도 해놓는다. 그런데 여기, 청년들이 딱 한 번만이라도 만나고 싶어 하는 인생 선배들과 정기적으로, 그것도 일대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대학청년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 홍하영 기자 hh0@onnuri.org



살아있는 인생 경험을 주고받는 멘토와 청년들(왼쪽 박일환 장로와 김창식 형제, 오른쪽 신현우 집사와 안선명 형제).

‘멘토’라는 단어는 <오디세이(Odyssey)>에 나오는 오디세우스의 절친한 친구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출정하면서 친구 멘토에게 자신의 집안과 아들 텔레마코스를 부탁한다. 멘토는 오디세우스가 전쟁에서 돌아올 때까지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친구의 아들 텔레마코스의 친구이자 스승, 상담자, 때로는 아버지가 되어줬다. 전쟁에 나간 친구 오디세우스 대신 텔레마코스 왕자를 지혜롭고 현명한 왕으로 키워냈다. 텔레마코스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 멘토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때마다 멘토는 그의 곁에서 진심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 이후 지금까지 멘토라는 이름이 ‘지혜와 신뢰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현명한 지도자(충실한 조언자)’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멘토를 만나고 싶어한다.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 있는 청년들은 더욱 그렇다. 수많은 청년들이 인생 선배들에게서 교훈을 얻고자 한다. 선배들의 인생 경험 그 자체가 그들이 찾아 해매는 문제의 해답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인생을 먼저 산 선배들의 경험과 진심어린 조언이 청년들에게 정말 큰 도전과 위로가 되기 때문이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에도 청년들에게 도전과 위로, 사랑을 선물하는 사람들이 있다. 멘토들이다. 청년들은 멘토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멘토들과의 대화에서 신앙과 삶에 대한 고민과 문제를 극복하고 있다. 오디세우스의 친구 멘토가 그랬듯이 대청 멘토들도 청년들의 스승이자 부모, 상담사이자 친구가 되어주고 있다.

“나도 멘토님처럼 살아야겠다”

안선명 형제(부천드림플러스공동체)는 신앙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멘토 신현우 집사(부천드림플러스공동체 멘토)를 만났다. 안선명 형

제는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녔는데 2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신앙적인 어려움과 마주했다. 이 무렵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도 했는데 마땅히 물어볼 대가 없었다. 교회를 옮긴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에 신현우 집사를 만났다.

안선명 형제와 신현우 집사는 7개월 동안 식탁교제를 나누면서 대화했다. 신현우 집사는 안선명 형제와 만나는 시간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다.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컸다. 살아오면서 실수한 경험을 나누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7개월 동안의 만남이 안선명 형제의 신앙을 성장시켰다.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해매던 안선명 형제가 지금은 부천 온누리교회 찬양팀을 섬기고 있다. 그룹홈 사역도 하면서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있다. 가치관에도 변화가 생겼다. 일터를 ‘능력에 맞게 들어가 돈을 버는 곳’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라고 생각하게 됐다. 신우회를 만들어서 동료들과 말씀을 나누고, 섬기는 신현우 집사를 보면서 일터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또한 신현우 집사의 연애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교제하는 방법을 배웠다. 매일 함께 QT하면서 교제했다는 신현우 집사 부부의 이야기가 안선명 형제가 가지고 있던 연애에 대한 가치관을 바꿔놓았다. 무엇보다 신현우 집사가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이 도전이 됐다.

“멘토님 덕분에 제 신앙과 삶이 많이 변화됐어요. 멘토님이 제게 해주셨던 조언들을 삶으로 직접 보여주시니까 더 와 닿고 도전이 되더라고요. 항상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는 멘토님을 보면서 ‘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일 마주할 때마다 떠오르는 ‘멘토’

부모는 자녀가 자신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

기를 바라면서 미리 길을 닦아준다. 먼저 걸어온 그 길에 대한 경험을 아낌없이 들려준다. 멘토도 멘티에게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 김창식 형제(요셉공동체)는 요셉공동체에서 자신의 인생 경험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든든한 아버지 같은 멘토를 만났다. 요셉공동체 대표멘토 박일환 장로다.

김창식 형제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올바른 신앙관과 재물관, 인격을 갖춘 크리스천 CEO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다. CEO 출신 박일환 장로에게 도움을 받고자 찾아갔다. 박일환 장로는 김창식 형제를 너무나 따뜻하게 맞아줬다. 크리스천으로서 경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도 알려줬다. 얼마 전에는 조금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웠다. 김창식 형제는 준비하고 있는 일들이 번번이 잘 풀리지 않아서 조금한 마음이 찾아왔다.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밀려왔다. 박일환 장로는 김창식 형제에게 본인의 실패담을 들려줬다. 그러면서 “기다려다보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조언했다. “조급하다 보면 꼭 봐야 할 다른 부분을 놓치게 된다”는 충고도 잊지 않았다. 박일환 장로의 조언대로 조금한 마음을 내려놓으니 일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준비하던 사업이 잘 진행되어 다음 달 오픈 할 예정이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될 수많은 선택 앞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지도 배웠다.

“박일환 장로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인생은 의사결정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제 선택으로 인해 결정된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제 삶에 적용해 보니까 마음가짐부터 달라지더라고요.”

일적인 고민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 신앙적인 고민, 결혼, 인간관계 등에 대해서도 큰 도움을 받고 있다. 어려운 일을 마주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박일환 장로가 떠오를 정도다.

웃음 가득한 멘토들의 고백 “청년들과 소통할 때 가장 행복하다”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멘토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다. 신현우 집사는 “청년들과 삶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행복”이라며 “청년들을 더 섬기고, 그들을 돕기 위해 더 노력하는 멘토가 되고 싶다”고 고백했다. 실제로 신현우 집사는 청년들과 더 가까워지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청년부 공동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일을 맞은 청년들을 챙기고 있다. SNS 카카오톡에 생일을 맞은 청년의 이름이 뜨면 잊지 않고 간단한 선물을 전달하고 마음을 표현한다. 순모임 단체 채팅방에서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기도 한다. 지난 해에는 청년부 리더십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윗놀이를 하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이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박일환 장로 역시 청년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년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공부하고, 순모임에도 참석하고 있다. 박일환 장로는 “청년들과 소통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했다. 박일환 장로가 이 시대 청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 좋은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도 여러분을 보시기에 좋은 결작으로 빚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결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인생을 소중하게 살아가십시오.”

박일환 장로와 신현우 집사 외에도 대학청년부에는 수많은 멘토들이 있다. 청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한다.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일대일 멘토링도 해주고 있다. 인생 선배들의 도움이 필요한 청년이 있다면 주저 없이 다가가기만 하면 된다.

영화와 함께 읽는 성경

“당신 마음속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오!”

루카 지오르다노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정화’



김진국 집사
(한강공동체,
융합심리연구소장)

나폴레옹 1세의 황제 대관식(1804년)이 어디서 열렸는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지나 볼로브리디와 안소니 퀸이 주연한 영화 ‘노트르담의 꼽추’ (1957년)의 배경이 어딘지 아는 사람은 많다.

이 영화가 유명한 탓도 있지만, 영화 이름에 정답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젊은이들도 디즈니에서 만든(1996년) 동명의 애니메이션을 보고 자랐기 때문인지 원작자가 빅토르 위고인 줄은 몰라도 영화가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을 배경으로 했다는 것은 모두 안다.

지난 4월, 그 노트르담 대성당(1163~1250년)에 불이 났다. 다행히 침탑과 일부 목조건물만 태우고 진화되었다. 노트르담 대성당은 전성기 고딕양식의 백미로 꼽힌다. 적당한 높이에 둥근 아치를 가진 기온 로마네스크양식은 교회 내부가 비좁고 어둡다. 반면 고딕양식은 모든 지지대를 외부로 빼내면서 탁 트인 넓은 내부 공간이 특징이다. 하늘을 향해 드높이 솟아 오른 침탑도 두드러진 특징이다. 침탑은 천상의 절대자 하나님을 숭배하는 중세 서구인들의 열망을 반영한다. 그런데 이 침탑이 타버렸다. 세계 각지에서 엄청난 복구 성금이 모였지만 귀중한 문화유산이 일부라도 소실된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그 성전에서 예수님은 왜 버락같이 진노하신 걸까?

오늘은 성전정화 사건을 다룬 요한복음 2장 13~22절을 묵상하고자 한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은 유월절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성전으로 가신다. 성전 안에서 예수님은 소, 양, 비둘기 등을 파는 사람들과 환전상들을 목도하시고 격노한다. 심지어 노끈으로 만든 채찍으로 소나 양 등을 몰아내고 환전상들의 상까지 엮어버린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도 나무란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오늘 본문과 함께 묵상할 그림은 17세기 이탈리아 바로크 미술의 거장 루카 지오르다노(1634~1705년)가 그린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정화’이다. 지오르다노는 성전에서 상인들을 채찍으로 몰아내는 예수님의 단호한 모습과 그에 대비되는 놀랍고 두려운 마음으로 밀려나는 상인들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루카 지오르다노가 그린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정화’ (러시아 에르미타주미술관 소장).

내면을 더러운 시장 바닥처럼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깨끗한 성전으로 보전할 것인가 예수님은 강력한 어조로 결단을 요구하고 계신다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 할 차례다

싸매”(시 147:3) 주시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22:39)고 하신 사랑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버락같이 진노하신 걸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들은 어찌하여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막 11:17).

그렇다. 상인들은 만민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러는 신성한 장소를 경건함과 거리가 먼 장사치들의 호객소리와 구매자들의 흥정소리에 찌든 시끌벅적하고 무질서한 도매시장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게 강도 소굴이 아니고 무엇이라.

원래 돈이란 것이, 상거래가 어찌 나쁜 행위 이겠는가. 소나 양과 비둘기 같은 동물이 무슨 죄가 있으랴. 하지만 동물이나 사람이나 제각기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 법이다. 각자가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고, 분수를 벗어나는 순간 비극이 시작된다.

지오르다노의 그림에는 예수님의 채찍질에 쫓겨나는 상인들의 모습이 보인다. 유감스럽게도 상인들의 낯빛에는 두려움과 항당함만 보일 뿐, 회개의 표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의 참뜻을 짐작조차 못하는 것이다.

돈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적 재산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흘러가야 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마 22:21)는 예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정의를 구별하라는 뜻이다. 그런데 돈이 인간의 세속적 정의에 매이는 순간 사람을 오히려 매인다. 예수님을 파는 대가로 은전 30냥을 챙긴 유다처럼 돈이 배반과 배신의 상징으로 변해버리기도 한다.

순결과 희생제물의 상징이 배신, 부자유, 탐욕, 불화의 상징으로

지오르다노의 그림 양쪽에는 각각 소와 양이 보인다. 양은 원래 순결한 희생제물을 상징한다. 이것이 확대되어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 받은 사람들을 나타내기도 한다. 허나 성전 안으로 끌려온 양은 자유를 잃고 심리적 노예상태가 된 우리를 상징한다.

소 역시 양과 더불어 대표적인 희생제물이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제 주인이 놓아준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사 1:3)라는 말씀에 따라 이콘(기독교에서 그리스도나 마리아 또는 성인들을 그린 그림이나 조각)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지켜보는 겸손한 동물로 추켜세워진다. 그러나 성전에 끌려온 소는 우리의 탐욕과 정욕의 상징으로 추락한다.

지오르다노의 그림에는 보이지 않지만, 순결함을 상징하는 비둘기만큼 성화에 많이 등장하는 동물도 드물 것이다. 노아의 홍수 이후 올리브 가지를 물고 돌아온 비둘기는 지상에 다시 도래한 평화를 상징한다. 또한 비둘기는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한다. 성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로 강림”(눅 3:22)하셨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는 그림이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는 기적을 묘사하는 그림에서도 비둘기가 나타난다. 그러나 성전에 끌려온 비둘기는 쉴 새 없이 구구거리면서 상대방 부리를 쪼는 불화의 상징이자, 부단히 날개를 퍼덕거리며 안식을 취하지 못하는 산만함의 상징으로 변질되었다. 이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에 배신의 상징, 정신적 부자유의 상징, 탐욕의 상징, 불화와 산만함의 상징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난장(亂場)을 만들고 있다. 사랑과 공의의 예수님이라 한들 어찌 좌시하겠는가!

그나마 루카 지오르다노의 그림은 어두운 노란색과 황갈색을 주조로 차분하게 가라앉은 색조를 사용하는 바람에 다른 화가들의 그림보다는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가 덜 격정적으로 보인다. 같은 주제로 그림을 그린 체코 델 카라바조나 야코프 요르단스 같은 화가는 짙은 붉은 색을 주조로 진노를 강조하고, 엘 그레코는 차가운 푸른색을 주조로 하여 서늘 퍼런 분노를 표현했다.

미셸 피이예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빌려 강생(降生)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새성전이 되었고, 건축물인 구성전을 대신하면서 율법의 시대가 끝났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갈라진 것이나(마 27:51), 오늘 본문처럼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요 2:19)는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참다운 새성전이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강생하신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평화하심으로써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된 성전으로 거듭났다.

예수님이 성전을 더럽힌 상인들을 축출하신 진정한 의미가 뭘까? 노트르담 대성당처럼 성전이라는 외적 건축물도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참된 성전으로서의 우리 몸’을 거룩하게 보전하라는 것이다.

우리 내면을 더러운 시장 바닥처럼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깨끗한 성전으로 보전할 것인가. 예수님은 강력한 어조로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신다.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 할 차례다.

2000선교 재능기부
‘ON편지팀’-러시아

2000선교 재능기부 ON편지팀의 올해 여름 아웃리치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의 거센 밤바람을 맞으며 시작됐다. 서둘러 걸옷을 꺼내 입고 종종걸음으로 버스에 오르고 나서야 러시아 땅을 밟았다는 게 실감났다. 선교사님들이 ‘눈과 얼음의 나라’라고 편지에 쓰시던 그 나라에 도착한 것이다.

이번 러시아 극동지역 아웃리치는 ON편지팀의 첫 아웃리치였다. 편지로만 접하던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현지의 필요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자 떠난 걸음이었다. 그동안 ON편지팀은 전 세계에서 사역하고 있는 온누리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담은 기도정보지를 만드는 일을 해왔다. 선교사님들이 보내온 편지를 재능기부자들이 편집하고, 디자인을 입혀서 소책자로 만들어 중보기도자들에게 보내는 일이다.

나는 러시아가 속해 있는 유라시아 지역을 담당하고 있어서 수년 동안 이 지역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편지로 접해왔다. 수도인 모스크바뿐 아니라 시베리아, 블라디보스토크, 우수리스크 지역의 선교사님들이 편지를 보내왔다. 러시아는 몇 년 전 테러방지법이라는 명목으로 종교법을 강화하였고, 이로 인해 외국인의 포교 및 종교활동에 큰 제약이 생겨 선교사님들이 운신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그 와중에도 선교사님들은 위축되지 않고 관계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일을 계속

수동태와 능동태의 절묘한 조화



ON편지팀이 러시아 극동지역 선교사님들과 교제하고 함께 예배드렸다.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셨다.

이번 아웃리치에서는 편지로 만나던 분들과 교회를 실물로 접할 수 있었다. 편지로만 접하던 소식을 비로소 사람들의 표정과 거리의 풍경까지 담을 수 있었다. 러시아에서 일행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 마냥 눈물이 났다.

러시아 극동지역은 일찍이 우리 민족 삶의 터전이 되어준 곳이다. 기근과 탐관오리를 피

해 연해주 지역으로 갔다가 사할린으로 강제이주하게 된 ‘고려인’들은 러시아 곳곳에 흩뿌려져 잡초처럼 질긴 생명력으로 그 땅에 정착했다. 황무지를 개간해서 ‘모범농장’을 일구고, ‘노동영웅’이라 불리기도 하던 고려인들은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의 불씨가 되기도 했는데, 이 땅에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오자 고려인들이 선교의 가교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선교사님들은 현지 사역에 힘을 뿐 아니라 북한을 품고 중보기도하며 통일한국을 준비하고 계셨다. 우리는 선교사님이 중보기도 모임에서 만났다는 러시아인 형제와 식탁교제를 나누었다. 그는 하루 15시간씩 일해서 가족을 부양하는데, 러시아인 성도들과 한 번씩 북한에 들어가곤 한다고 했다. 비록 전도를 할 수는 없지만 북한 땅을 밟으며 기도하고 북한 사람들과 마음을 나눈다고 하였다. 우수리스크의 중국인 예배에서 만난 한쪽 크리스천들도 손수 만든 물품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간다고 했다. 북한을 품고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방향을 짐작해보았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크게 보아 수동태이다. 자기 의와 자기 뜻을 주장하지 않는 면에서 그렇다. 그러면서 또 순간마다 싸우고, 매일 힘쓰는 능동태의 삶이기도 하다. 물질고 낮은 땅에 풀처럼 뿌리내린 선교사님들의 삶은 수동태와 능동태의 절묘한 조화 속에 있었다.

그분들의 기도와 예배와 삶 자체만으로 선교이기에 나는 선교사님들의 편지를 읽을 때 사역의 열매보다 선교사님들의 생각에 더욱 주목하게 될 것 같다.

김효진 성도
(서초C공동체,
ON편지팀)강남C공동체
후쿠오카

이제부터 시작!

강남C공동체 겸손, 사랑 다락방이 지난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일본 후쿠오카로 연합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6월 21일 후쿠오카에 도착하여 프레이즈란 도교회 이형석 선교사님 부부와 반가운 만남을 가졌다. 선교사의 무덤이라 불리는 척박한 땅에서 15년 동안 부흥의 소망을 붙들고 섬기고 계시다. 20여 명 남짓한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작은 교회였지만, 기도의 응답으로 20년 된 파킨슨병이 90% 이상 호전된 기적을 체험한 장로님을 중심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

6월 22일에는 무나카타시 요양원과 양로원에서 두 차례 공연을 했다. 3개월 동안 연습하고 준비했지만, 난생처음 하는 공연에 대한 부담으로 긴장감을 감출 수는 없었다. “몇 명의 인원이 모이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터치와 위로가 필요한 단 한 명의 영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어도 감사합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해주세요”라고 성령님께 계속 기도드렸다.

드디어 우리가 준비한 40여 분짜리 미니 리브소나타가 시작됐다. 요양원과 양로원의 할머니들이 한국 부채춤 공연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선교사님의 소식을 접하고서 이 공연을 준비하게 되었다. 김미래 집사님을 팀장으로 공연팀이 꾸려졌고, 초보 몸치 자매들이 부채춤 공연단원이 되어 지난 3개월 동안 매주 주



강남C공동체 성도들이 일본 후쿠오카 무나카타시 요양원과 양로원에서 부채춤 공연을 하고 있다.

일 모여 열심히 연습했다. 여기에 형제들의 갓 블레스유 일본어 중창, 꿈나무 연주가 주하의 바이올린 연주, 이정은 권사님의 ‘지금은 은혜의 때’라는 일본 찬양곡 독창, 김미래 팀장님의 ‘어메이징 그레이트스’ 워십 독무와 진도 북춤, 가요 ‘돌아와요 부산항에’ 합창에 이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일본어로 부르며 화관을 씌워드렸다. 양로원 및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전도집회였

다. 신기하게도 긴장되던 마음이 사라지고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휠체어에 의지한 웅크린 작고 노쇠한 몸, 주름살 가득한 생기 없는 표정, 낮고 무거운 공기까지 느껴졌다.

그런데 공연이 진행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처음에는 손을 까닥까닥하시던 어르신들이 하나 둘 박수를 치시더니 찬양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셨다. 감격에 겨운 듯 오열에

가까운 울음 속에 박수를 치시는 분도 보였다. 화관을 씌어 드리기 위해 그분들께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동안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감동으로 가슴이 터져 버릴 것 같았다. 부활의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그 처절한 외로움과 죽음을 향해 가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다.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이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얼마나 눈물 흘리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밀려오며 눈물이 쏟아졌다. 요양원 간병사들도 눈물을 흘리며 어르신들께 화관을 씌워드리고 축복했다.

폐줄 조각이 모여 하나의 멋진 그림이 완성되듯 아웃리치팀원 21명의 작은 달란트를 모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난생처음 아웃리치에 참여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쯤은 개의치 않는 담대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진정한 의미의 아웃리치는 지금부터다. 감동과 은혜의 물결 이후 일상으로 돌아가는 끝맺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로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비전을 품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아웃리치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배소영 성도
(강남C공동체)

CGNTV 직원
인도

6월 8일부터 16일까지 CGNTV 직원 6명이 인도 델리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인도에서 20년째 사역하고 계시는 김바울 선교사님과 함께 일정을 보내고, 모세오경을 필사한 인도 청소년 18명과 인도 북부 마날리 지역으로 3박4일의 캠프를 갔다.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는 나는 인도에 대한 환상이 있었다. 사진을 대충 찍어도 예술작품 처럼 찍힐 인도의 거리와 사람들, 화려한 옷차림과 알록달록한 색깔의 나라... 인도에 도착한 그날 나의 환상은 와장창 박살났다.

45도의 무더위, 어딜 가나 상상 이상으로 북적거리는 사람들, 최악의 공기, 갈증과의 싸움, 양심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 등 장점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환경이었다. 하지만 나를 비롯한 팀원들이 더 힘겨워했던 것은 선교사님의 스타일이었다. 따뜻한 배려나 온화함 보다는 이름 그대로 바울처럼 저돌적이었고 직설적이었다. 식당을 가면 현지인들과 매번 싸웠고, 사소한 부분조차 그냥 넘어가지지 않으셨다. 겉모습만 한국분이지만 완전 인도사람이셨다.

인도의 아이들과 3박4일의 캠프를 떠날 때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작은 버스를 타고 갔다. 15시간 걸린다면 거리가 23시간 걸렸다. 너털너털해진 나와 달리 인도의 아이들은 전혀 불평불만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에게는 이러한 캠프가 일생에 한번 있을까



CGNTV 직원들이 인도 델리의 아이들과 3박4일 동안 캠프를 떠났다.

말까한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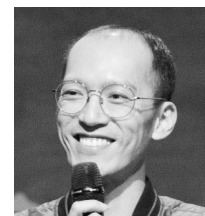
히말라야 만년설이 녹아내리는 계곡물에서 바들바들 떨면서 물놀이를 할 때, 개구쟁이들이 사원에 갔을 때에는 여기 있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 다음날 아침부터 비가 내렸는데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날씨와 캠프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힌두교의 나라, 2억 명이 넘는 무슬림이 사

는 나라, 3억 개가 넘는 우상이 존재하는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감히 어떠한 것인지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지만, 그 아이들의 믿음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인도에 대해 '불편하다', '불친절하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았다. 그제야 보이는 것들이 생겼다. 낮은 계급에 태어나 삶의 목적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는 모두 아름다운 사람들,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양심 없이 살지만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단 하루도 버티기 힘든 곳에서 한국인의 생각과 가치관으로는 절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인도인이 되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진짜 사랑하기에 그 삶을 살아내고 계셨다.

한국인의 시선으로 볼 때 인도는 너무 양심 없이 행동하고 무질서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도를 사랑하신다. 미전도종족이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인도이다.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 하나님은 인도에 관심이 아주 많으시다.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시선을 생각하며 다시 인도를 가봐야 할 것 같다. 인도의 나머지 99%를 경험하고 느껴보고 싶다. 결코 쉽지 않았던 시간을 전혀 불평하지 않고, 아프지 않았던 우리 아웃리치팀원들 덕분에 이번 아웃리치가 더욱 풍성하고 유쾌했다. 인도에 사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삶 자체만으로 그분들은 충분히 존경스럽고 은혜롭다!



김영신 형제
(CGNTV 제작 2국)

전도학교팀
호주

전도학교팀은 올해 6월 초 시드니 온누리교회에 전도학교를 세우기 위해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모두 하나 되어 릴레이 금식기도를 하며 아웃리치를 준비했다. 예배소서 말씀을 붙들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전도 강사와 조장으로 세워진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했다. 그런데 아웃리치 출발 전부터 여기저기서 많은 영적전쟁이 일어났다. 나 역시 출발 하루 전 소변에 출혈이 심해 병원에 갔더니 신장결석이 요도로 내려온 상태인데 돌이 네 개나 있다는 말을 들었다. 14mm 짜리 돌을 빼내려면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을 때 눈앞이 캄캄했다. '당장 내일이 출발인데...'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롬 8:35-37).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확신을 주었다. 그 확신은 내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울지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모든 고통 또한 이길 힘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었다. 전능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어떤 부정적인 불평이나 원망 대신 무조건적인 감사를 선포하고 고백



전도학교팀이 시드니 온누리교회에 전도학교를 세웠다.

했다. 비행기 안에서 통증이 올 때마다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속으로 외치며 시드니 온누리교회에 도착했다.

도착 첫날부터 긴장하며 사역했다. 첫 시간부터 교회 리더십을 포함한 성도 52명이 모두 하나 되어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숨소리조차 아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에서 성령의 기쁨 부으심이 물 흐르듯 흐르는 것을 경험했다. 하나님께서 왜 전도학교팀을 이곳에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호주 스트라스필드역에서 노방전도 실습을

할 때도 깜짝 놀랐다. 훈련생 조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현장에 나와 2박3일 동안 배우고 익힌 것을 실습했다. 구원의 확신을 전하는 그 모습은 감동의 현장이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 떠온 하인들만이 누웠던 축복을 경험하게 됐다. 마지막 때 최고의 행복(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영혼구원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는 자가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방법과 도구를 잘 장착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자가 되기를 소망한다. 누군가 내게 삶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단 1초의 망

설임도 없이 '영혼구원'이라고 대답한다.

우리 가정에는 가난과 중독과 여러 가지 저주가 가득했다. 그런데 우리 가정(아버지와 오빠가 알코올 중독으로 세상을 일찍 떠나심)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확신이 들었다.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진정 어머니도 전도해서 천국에 가셨다.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이후 우리 가정이 영적인 가문으로 변화되고 있다. 자녀들도 주의 종이 되어 목사와 사모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복음은 놀라운 능력이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롬 1:16).

오늘도 나는 하루에 한 명 이상에게 하나님인 예수님을 전하고자고 외쳐본다. 복음은 어떠한 사람, 가정, 민족일지라도 바꾸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다. 그 동안 한 가족처럼 중보해주신 한 분 한 분께 머리 숙여 감사인사를 전한다. 온누리 전도학교 최고의 행복(복음)이 지역과 캠퍼스와 도시와 열방을 향하여 퍼져나갈 것을 기대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린다.



김미자 권사
(양천공동체,
온누리전도학교)

내 삶의 목적 '영혼 구원'

“더 많은 생명 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

낙태죄 헌재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정책토론회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낙태죄에 대한 여성계, 의료계, 법조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한국가족보건의협회와 함께 ‘낙태죄 헌재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정책토론회(이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8일(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는 각계 인사와 시민 6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책토론회에서는 배정순 대표(프로라이프 여성회), 홍순철 교수(고려대학교 산부인과), 신동일 교수(한경대학교 법학과)가 발표했고, 김지연 대표(한국가족보건의협회), 차희제 대표(프로라이프의사회) 등이 토론했다. 배정순 대표는 “선진국에서는 낙태가 전면 허용되는 것으로 말하는데 미국에서는 태아의 심장박동이 확인되면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순철 교수는 “낙태 가능 주수 22주는 의학과 과학이 발달되기 이전 기준”이라며 “지금은 몸무게가 300그램 밖에 안 되는 영아도 충분히 살릴 수 있을 정도로 의학이 발전했다”고 강조했다. 신동일 교수는 “생명이 시작되는 시점은 수정

순간으로 보는 것이 성경적”이라며 “엄격한 낙태금지법이 나오지 않는 것이 유감”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여한 고영일 변호사(자유와 인권 연구소)도 현재의 판결을 꼬집었다. 고 변호사는 “태아의 결정권이 임부의 자기결정권보다 낮은 지위에 있다면 자유를 위해 더 높은 이익인 생명을 포기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결국 범죄 할

자유도 포함된다”고 비판했다. 김지연 대표는 “이번 입법을 통해서 무엇보다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가스펠프로젝트 ‘위대한 복음’ 개강

구속사(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행위에 관한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가스펠프로젝트 ‘위대한 복음’이 7월 27일(토) 오전 6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관 402호에서 개강한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하나님을 찬양한 마리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어린 시절’,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 ‘겸손한 세례요한’,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배척당하신 예수님’을 주제로 8주 동안 진행된다. 최성석 목사가 강의한다. 회비는 2만 원이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이나 전화로 하면 된다. 문의: 010-9923-1196

새가족 등록을 축하합니다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1136332	김은석	여호수아	1136367	윤지혜	인천_믿음	1136393	이주희	SNS	1136422	류정민	수원_복누리
1136333	나혜원	여호수아	1136368	배현준	허브	1136394	임혜화	SNS	1136423	박은경	인천_소망
1136334	서은선	여호수아	1136369	윤소은	허브	1136395	김윤임	서초D	1136424	안영채	서초A
1136335	박지수	여호수아	1136370	김현지	허브	1136396	노태연	대전_드리마스	1136425	채정자	서초B
1136336	장유진	여호수아	1136371	임수현	허브	1136397	장세영	대전_드리마스	1136426	김의순	서초B
1136337	추민지	양재_특별한초대	1136372	두창호	허브	1136398	장건기	대전_드리마스	1136427	김외자	송파B
1136338	이지예	허브	1136373	두창호	허브	1136399	조아라	대전_드리마스	1136428	김경빈	허브
1136339	강성민	허브	1136374	이성연	허브	1136400	제준남	마포	1136429	김은정	인천_믿음
1136340	박채경	허브	1136375	서정현	허브	1136401	한정선	성북	1136430	최정숙	서빙고
1136341	안선영	허브	1136376	이유민	허브	1136404	윤정숙	수원_남누리	1136431	이승곤	수원_서누리
1136342	이지현	허브	1136377	구연미	강남B	1136411	김진호	하늘	1136432	유소연	여호수아
1136343	김도훈	허브	1136378	손순태	북누리	1136405	김소영	인천_소망	1136433	조소예	여호수아
1136344	조현영	허브	1136379	김재연	이수	1136407	강혜진	가정사역	1136434	도영희	여호수아
1136349	김광석	이촌	1136380	홍민	인천_소망	1136408	추혜림	강남D	1136435	강임경	여호수아
1136354	김학수	수원_복누리	1136381	김춘희	중종로	1136409	김재연	S브릿지	1136436	이동훈	여호수아
1136355	정성남	서빙고	1136382	장광수	서초D	1136410	이지은	강동_믿음	1136437	박창승	여호수아
1136356	김소현	W	1136383	이신형	SNS	1136411	강건혜	인천Web	1136438	박주성	여호수아
1136357	김수연	허브	1136384	한지연	SNS	1136412	김요셉	인천Web	1136439	김민섭	여호수아
1136358	이윤재	허브	1136385	이윤희	SNS	1136413	김지은	Point5	1136440	최성중	여호수아
1136359	이하영	허브	1136386	김루나	SNS	1136415	이희정	부천_희락	1136441	조유빈	중종로
1136360	김지우	허브	1136387	이동건	SNS	1136416	장춘자	평택	1136442	오일록	강남B
1136361	이동준	허브	1136388	김진영	SNS	1136417	조숙자	대전_남누리	1136443	박현숙	송파A
1136362	이민지	허브	1136389	김혜리	SNS	1136418	박수희	SNS	1136444	김대환	부천_소망
1136363	오주원	허브	1136390	이은영	SNS	1136419	최원형	SNS			
1136364	나한나	허브	1136391	방선헌	SNS	1136420	김민기	SNS			
1136365	이지섭	인천_소망	1136392	정진영	SNS	1136421	문강희	S브릿지			

NGO 더멋진세상, 몽골 농업프로젝트 시작

7월 16일까지 아프리카 르완다 봉사단원도 모집

NGO 더멋진세상이 몽골의 미전 도종족인 ‘브리아트족’이 생활하고 있는 바잉동 마을에서 농업프로젝트를 시작했다. 60가구가 농업프로젝트에 참여한다. 마을 인근 버려진 농장 등지에서 감자, 당근, 양배추 등을 재배할 예정이다. NGO 더멋진세상은 아프리카 르완다 가혼도 마을에도 두 번째 우물을 파졌다. 한편, NGO 더멋진세상에서 아프리

카 르완다 해외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르완다 응호광과 마을에서 2019년 9월부터 1년 동안 지역보건 요원, 부모 대상 영양보건지식 강화 교육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7월 16일까지 NGO 더멋진세상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한 다음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02-2271-2246 e-mail: gai@abetterworld.or.kr

새로운 융합선교 장(場) 열렸다

일본 오사카 TIM-JAPAN 개소식

지난 7월 2일 일본 오사카 츠틀루시에 위치한 TIM-JAPAN 사무실에서 ‘TIM-JAPAN 개소식예배’를 드렸다. TIM-JAPAN 사역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TIM-JAPAN은 일본 지역교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체계적으로 일본선교를

감당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도육환 목사(TIM 본부장)는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것들이 구체적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것 같아 너무 기대된다”면서 “융합선교의 장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했다. / 홍하영 기자

(주)좋은사람들 여성속옷 2만장 기부

공동체 아웃리치팀이 선교지에 전달 예정

(주)좋은사람들이 온누리교회에 여성속옷 2만장을 기부했다. 지난 7월 9일(화) (주)좋은사람들이 온누리교회 공동체 아웃리치팀에게 여성속옷을 전달했다. 온누리교회가 기증받은 여성속옷은 공동체 여름 아웃리치팀이 선교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태열 장로는 “네팔의 산골마

을인 고레다라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물품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원받게 하셨다”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주)좋은사람들은 제임스딘, 보디가드, 예스, 슈가프리, 돈앤돈스 등의 속옷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의류회사다. / 김영선 기자

‘창조과학자를 찾아라’ 참가자 모집

7월 20일 오전 10시 서빙고 한동홀

어린이 창조과학스쿨 ‘창조과학자를 찾아라’ 참가자를 모집한다. ‘과학자의 위대한 발견과 신앙고백’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어린이 창조과학스쿨은 7월 20일(토) 오전 10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진행된다. 대상은 초등학생이다. 어린이 창조과학스쿨 ‘창조과학

자를 찾아라’에 참가하면 창조역사와 창조 신앙관을 배울 수 있다. 참가신청은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만5천 원이다. 7월 15일까지 등록하면 회비를 5천 원 할인해준다. 문의: 010-6284-8479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서빙고 상담센터 슈퍼바이저 모집

서빙고 온누리교회 상담센터에서 슈퍼바이저를 모집한다. 자격은 온누리교회 등록교인이면서 (기독교) 상담학 박사과정(수료)을 마친 성도이다. 슈퍼비전 경력 100사례 이상, 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다. 7월 31일(수)까지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목회자 추천서, 임상경력증명서, 자격증 본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e-mail: lsy1227ysl@hotmail.com 문의: 02-793-2998

■ 일대일제자양육 수료 간증



/ 구학림 목사(영월 소원교회)

물 떠온 하인들만 아는 기쁨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신약성경 서신서에서 교회에 드리는 사도들의 인사말이다. 이번에 강원도 영월 지역에서 진행된 일대일제자양육 과정을 공부하면서 이 인사말의 의미가 마음에 와 닿았다.

이번 영월 지역 목회자와 사모들을 위한 일대일제자양육은 영월교도소 재소자 형제들이 만들어낸 것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영월에 교도소가 생기고, 그곳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형제들이 오게 됨으로써 만들어진 교회이기 때문이다. 몇 년 동안 영월교도소를 찾아 먼 길 오가면서 수고하시는 온누리교회 일대일 양육자님들을 보아왔다. 권영석 장로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제안하셨다. 영월 지역 목회자들이 자체적으로 영월교도소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일대일제자양육을 하면 좋겠다는 권면이었다. 일대일제자양육 과정을 이수하면서 보니 아마 물 떠온 하인들만 아는 기쁨의 은혜를 영월교도소 담 안에 있는 향아리에 가득 채워 재소자들에게 참 포도주의 맛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주님의 마음인 것 같다. 서울에서 강릉까지 먼 길 오가며 양육자로 헌신해주신 온누리교회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나의 양육자였던 김재욱 장로

님께 감사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지만, 매번 묻는 안부 속에는 나를 향한 주님의 애뜻한 사랑이 전해져 왔다. 바쁜 목회 중에 양한 마리를 놓치기 쉬운 목양자가 가져야 할 덕목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이정표이기도 했다. 앞으로 목회 현장과 영월교도소의 재소자 형제들을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만나고, 그들과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지 절실하게 일깨워주는 사랑이었다. 그동안 함께 참여하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로 아끼지 않은 영월지역 동역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영월교정선교회’를 통해 생명 전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음에 그저 감사할 뿐이다. 온누리교회 양육자님들의 헌신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피부로 느껴지고, 마음속에 이식받았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주님의 어루만짐을 양육자님들을 통해서 느꼈다. 일대일제자양육 숙제는 끝났지만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는 숙제가 많이 남아있다.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갯세마네 동산이 내게 더욱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주님의 권면을 가슴에 새기며 목회와 영월교도소 재소자들을 위한 양육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온누리전도학교 수료 간증



/ 이주선 집사(성동광진공동체)

하나님은 전도를 기뻐하신다

전도는 다른 사람의 시간과 공간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다.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전도해야 하는 것에 대해 어려운 마음이 들었다. 주변의 시선과 거절 또한 두려웠다. 나는 전도에 대해 소명과 부담을 동시에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다. 내 개인적인 문제가 풀리면 당당하게 전도를 하리라는 공수표만 날리고 있었다. 내가 전도학교를 수강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지금 내 인생의 광야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싶은 갈망 때문이었다.

전도학교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노방전도였다. 용산역에서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내가 알아볼 수 있게 해 달라는 간절함으로 나아갔다. 남아시아 출신으로 보이는 형제가 혼자 앉아있었다. ‘쏘나’라는 캄보디아 형제였다. 노동자로 한국에 왔는데 휴일이라 친구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다행히 ‘쏘나’ 형제는 내가 하나님을 소개하는 시간을 허락해주었다. <최고의 행복> 전도지가 21개국 언어로 번역 돼있어서 캄보디아어 전도지를 내밀며 자국말로 읽게 했다. 그 형제는 고개를 끄덕이며 읽었다. 옆집까지 받아들이는 그 형제를 위해 기도를 해 줄 때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느껴졌다. 오이도에 거주한다는 그 형제를 안산M센터와 연결해 주기로 했다. 내가 한 것이라고는 그 형제가 읽기 쉽게 손가락으로 가리킨 것밖에 없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반성하게 되었다. 동시에 의구심도 생겼다. 혹시 나의 체면을 위해서 전도에 열심을 냈던 건 아닌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열심을 낸 것인지 내 마음 한 구석에서 본질을 분별하는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앞으로 기도로 나아가며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계속 변화될 부분인 것 같다. 전도학교를 수료하면서 많은 은혜가 있었다.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니 내 안에 참 평안이 충만하다. 또 전도 전문을 외우고 되새기며 매일 하나님의 복음을 먹고 있다. 체계화된 복음의 정수를 내 머리와 가슴에 새기니까 마음이 넉넉해진다. 기도의 초점이 바뀌어 내 삶이 조금씩 성화되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나에게 초점이 맞춰있던 간구가 어느새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게 되었다. 내 신앙의 폭이 넓어지고, 한 단계 성숙되어 가는 것 같다.

■ 선교지에서 온 편지



/ 박일구, 신인순 선교사(아프리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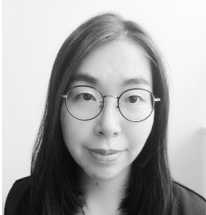
“함께 기도해주십시오”

아프리카 중부 말라위에 새롭게 들어온 지 벌써 한 달이 되어갑니다. 감사하게도 먼저 자리를 잡고 열심히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가정이 우리의 정착을 도와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남반구는 지금 겨울이 시작되어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물과 전기도 아껴서 사용하며 이곳에서의 생활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그 생활을 불편해 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으며 살아가는 현지인들의 모습을 저희도 닮아갑니다.

정이 많고 마음이 순진한 이들에게 더 멋진 마을을 만들어 주려고 선택한 ‘포스트 마술라니’라는 마을은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물 사정도 여의치 않은 지역입니다. 이 마을은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더 좋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을 사람들의 의지가 보이는 희망적인 곳입니다. 그동안 많은 단체에서 구호를 받아 왔지만 여전히 빈부차이가 크고, 돌세 개를 아궁이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인의식이 없는 것은 아닐까 걱정도 됩니다. 전에는 제가 먼저 나서서 일을 주도하면 현지인들이 따라오는 형식으

로 일했습니다. 계획된 기간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단기간에 열심히 하고 떠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주민이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움직이면 도와주는 형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늦더라도 천천히 가는 쪽으로 일을 합니다. 제 성격상 쉽지만은 않지만 좋은 과정이라 생각하고 따라갑니다. 마을을 둘러보던 중에 주변 냇가에 많은 물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물을 이용하면 물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고 있는 마을에 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기가 없는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램 펌프시설에 관심을 가지고 시험적으로 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개울가에 흐르는 풍부한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만 있다면 농사를 짓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궁이를 만들어서 보여주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 스스로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램 펌프시설이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자재들을 구입해서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온누리 가족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부모하트스쿨 참가자 간증



/ 맹수연 성도(동작공동체)

“서현아 미안하고 사랑해”

순장님이 남편에게 세 번에 걸쳐 순장사관학교에 들어가기를 강권하셨다. 매번 사양하던 남편이 하나님께 “내가 정말 순장사관학교에 가길 원하신다면 꿈에 나와서 말씀해주세요요”라고 기도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바보 같은 기도가 어디 있나 했는데 그 기도 이후 남편은 교회 게시판에서 부모하트스쿨 광고를 보고 그것이 기도응답이라 여겼다. 내적치유학교 수료 이후 딸에게 너무 미안하다는 마음을 진심으로 전하고 안아주었다. 그런데 그 회복의 시간 이후에도 나는 여전히 부족했고, 딸도 늘 사랑에 목말라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가족은 남편의 뜻에 따라 부모하트스쿨에 등록했다. 부모하트스쿨을 수강하면서 하나님은 조금씩 우리의 부족한 면을 다듬어 가셨다.

7주차 캠프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다. 허철 선교사님이 진행하신 집회에서 하나님이 딸의 마음에 사

랑을 부어주셔서 그 빈 마음이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했다. 선교사님의 말씀과 뜨거운 간증이 끝나고 자녀를 안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따라 아이를 안고 기도했다. 내 품에서 눈물을 쏟아내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우리는 함께 울며 “미안하고 사랑한다”는 고백했다. 하나님께서 헤세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했다. 기도회 이후 선교사님은 서현이에게 우리(부모)가 서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서현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해주셨고, 선물을 주셨다. 우리는 그 선물이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의 증표라 여겼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6월 1일을 패밀리데이로 정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충만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안다. 그렇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한 발자국 내딛으며 그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살겠노라 다짐한다.

우리 가정을 택하시고 충만한 사랑을 확증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장로칼럼

예수님의 사랑이...

이화영 장로
(분당A공동체)

사역장로 사랑방에 어느 장로님이 이런 글을 올려주셨다.

“둘째 아들 집의 현관 문 비밀번호가 우리 집하고 똑같은 줄 몰랐다. 엄마가 언제든지 그냥 열고 들어오시라고 머리가 그렇게 해놓았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큰며느리가 우리집 비밀번호와 똑같이 해놓았다는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둘째도 그렇게 해놓았다니 너무 놀라고 고마웠다.”

드라마 ‘넝쿨째 들어온 당신’에서 주인공 차윤희(김남주)가 ‘고소공포증보다 무서운 시월드(시댁)공포증’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 ‘이런 시어머니 정말 싫다 Worst6’ 목록도 나열했다. 그 중 5번째가 ‘집에 불쑥 찾아올 때’였다. 시댁이 싫어 시급치를 보기만 해도 경기(驚氣)를 일으킨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오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과 반대되는 장로님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 가족 모두에게 그대로 흘러 녹아내린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여준 것 같다. 우리는 바람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며 바람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도 그렇게 느낄 수 있다. 예수님의 사랑은 삭막한 오늘날 가족관계에서 이러한 조그마한 사건을 통해 우리들의 가슴으로 흘러 들어온다.

중등부 교사로 섬길 때 일이 기억난다. 우리반 윤현상 군의 학교 담임선생님이 “너를 보니 예수님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며 교회를 나오셨다. 그 작은 아이가 보여주는 행동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다. 반면 우리의 모습 때문에

교회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선교지이며, 서 있는 모습 그대로가 선교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성도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악취를 내뿜는 사람도 있다. 우리는 수시로 내 몸에서 나는 냄새에 민감해야 한다.

우리는 예수쟁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요새 젊은 것들은...’, ‘노인네들이란...’ 이런 말들을 사용하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벽을 쌓아서는 안 된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이 세상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남미 브라질에서 시작된 한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 주에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어느 기상학자의 ‘나비효과’ 이론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조그마한 감동이 세상의 영적 기후를 바꾸어 놓을 수 있다. 저수지 제방 붕괴가 조그마한 개미구멍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작은 사랑이야기가 영적 쓰나미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 너나 믿지 않는 너나 무엇이 다르냐?”고 말한다. 교회가 세상을 품고 기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장로님 가정의 잔잔한 감동이 우리의 내면세계를 스치며 강한 충격파로 세상에 전달되기를 바란다. 우리의 작은 사랑이야기들이 모여져 세상이 사랑으로 물들기를 바란다. 장로님 가정에 예수님이 사랑의 모습으로 다녀가신 것처럼 우리 모두의 삶 속에도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소망한다. 따뜻한 한 가족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녹아져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하늘정원을 가꾸는 선한 하늘정원사 되기를 기도한다.

권사칼럼

낮은 곳으로 임한 사랑의 하늘나라

정명옥 권사
(도곡공동체)

우리 부부는 지난 달 말 전라남도 광주와 순천, 여수 애양원에 이르렀던 선교역사 탐방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한 집사님을 심방하게 되었다. 주님 앞에서 일평생 신실하게 살아오신 애양원 교회의 집사님이셨다. 애양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집사님이 보이지 않아 연락을 드리니 집에서 심하게 앓고 계셨다. 그 길로 집사님 댁을 찾아갔다. 차가 들어가는 것조차 쉽지 않은 좁고, 인적이 드문 바닷가 외딴집에 살고 계셨다. 홀로 땀 흘리며 앓고 계시는 집사님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집사님과 처음 만난 것은 십년도 더 지난 일이다. 우리 부부가 주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전혀 연고가 없는 이 지역(여수)에 내려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기던 때였다. 어느 날 눈두렁길을 운전해 가다 생면부지의 집사님을 태워드린 일이 계기가 되어 그 집사님은 ‘온누리의원’의 단골 환자가 되셨다. 그렇게 관계를 맺어오던 어느 날 집사님께서 자신이 살아온 삶을 나눠주셨던 적이 있다. 어린 시절 결혼 생활을 비롯한 본인의 삶이야기를 식사도 거르고 온종일 말씀하셨다. 젊을 때부터 병든 남편을 등에 업고 병원을 찾아 먼 길을 뛰어다니시던 세월과 그 정성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이야기, 어린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 하셨지만 끝내 자식들마저 먼저 보내야 했던 한 맺힌 이야기였다. 그 집사님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호소하는 삶을 사셨다고 했

다. 병원 한구석에서 들던 집사님의 처절한 삶이 내 가슴 깊이 스며들었다.

우리 부부는 집사님이 누우신 그 이부자리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 집사님의 남은 생이 너무 외롭지 않기를, 병마로 너무 고통스럽지 않기를, 속히 건강을 회복하셔서 우리 병원에서 여전히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며 눈물로 기도를 올려드렸다. 그 기도를 하면서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다. 집사님이 누워 계시던 그 집이 낮은 곳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이 계신 진정한 하늘나라였다. 다시금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었다.

기도를 마치고 집을 나서는데 집사님이 아픈 몸을 일으키셨다. 앞마당에서 복분자를 손수 따서 담은 것이라며 실어주셨다. 너무도 흐뭇하게 바라보시며 웃는 집사님을 보면서 하늘나라의 진정한 부자를 보는 듯 했다. 상처 많은 이 땅을 살며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는 집사님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아닌지 가슴이 먹먹해졌다.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여수와 서울을 오르내리는 이 일이 육적으로는 쉽지 않을 지라도 계속 감당해야겠다고 다짐한다. 온누리교회의 ‘돌아키면 살아나리라’는 작년 표어와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라는 올해 표어처럼 살아내고 싶다.

“주님! 돌이켜 주님과 첫사랑을 회복하고 언제 어디서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바람 따라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주저 없이 나아가 사랑의 하늘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신앙에세이

요게벳의 노래

김기락 전도사
(파워웨이브)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최근 연일 CCM 순위 상위권을 지키며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찬양 ‘요게벳의 노래’의 노랫말이다. 한편의 이야기 같은 이 노래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상자에 아이를 담아 떠나 보낼 때 심경을 세밀하게 그려냈다. 아이와 이별할 수밖에 없는 한 어머니의 애절한 마음과 그림에도 그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손에 맡기는 그녀의 믿음이 전달되어 노래를 듣는 이들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준다.

이 찬양이 사람들에게 인상적으로 느껴졌던 이유는 요게벳의 마음을 잘 묘사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요게벳이라는 인물이 우리에게 조금 생소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

이 “요게벳이 누구냐”고 묻곤 한다. 요게벳이라는 이름은 성경 전체에서 두 번 등장한다. 그것도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족보에 나열된 이름들 중 하나로 등장할 뿐이다. 심지어 이 노래가 묘사하고 있는 장면인 출애굽기 3장에서 요게벳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한 여자로 표현되어 있어 철저히 숨겨진다.

요게벳은 조연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 명품 조연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주인공의 반열에 오를 수는 없다. 그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어 떠나보내고, 모세의 유모 역할을 했을 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다. 우리는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성향이 있다. 이왕이면 요게벳이 되기보다는 모세가 되기를 원하고, 누군가를 주목 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주목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신명기 28장 말씀을 인용해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신 28:13) 해달라는 표

현을 종종 쓰곤 한다.

나는 모태신앙이지만 24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곧장 선교의 비전을 품게 되었다. 당시 미국에 있었는데 당장 선교사가 되어야겠다며 한국에 돌아온 아들에게 어머니는 한번만 더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셨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나의 속마음을 발견하고 선교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 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었던 동기는 다름 아닌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심이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을 앞장서서 하는 주인공이 되고 싶었고,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일이 선교라고 믿었기 때문에 선교를 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 이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이 있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 새삼스레 깨닫게 되었다. 요게벳(יֹגֵבֶת)이란 이름은 ‘여호와 영광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יה’ (yah)와 영광이란 뜻을

가진 단어 ‘כָּבֵד’(kaved)가 합성되어 이루어진 이 이름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호(聖號)가 들어간 이름이기도 하다. 그녀의 이름은 하나님만이 영광스러우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모세가 아니어도 괜찮다. 다윗이 아니어도, 다니엘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그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무대에서 모세의 어머니 역할에 감사하며 충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무대에서 우리는 모두 조연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분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라고 고백하는 요게벳의 노래처럼, 우리 삶의 참 주인(主)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導) 하나님께 우리 삶의 주도(主導)권을 드려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사명을 충성스레 감당함으로 주인공이신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게 하는 명품(名品) 조연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7가지 치명적인 죄(3)-분노

지시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대해 모세가 어떻게 순종하고 분노하는지를 보십시오.

“그와 아론이 총회를 바위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불순종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내겠느냐?’ 그리고 나서 모세가 자기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바위를 두 번 내리치니 물이 많이 쏟아져 나와서 회중과 그들의 가족들이 마셨습니다.”(10~11절).

이 말씀을 겉으로만 보면 모세가 무엇을 크게 잘못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물이 쏟아져 나왔고, 사람과 가족이 마셨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 것 아닙니까?”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통해 모세의 내면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내겠느냐?”는 문장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세 가지의 미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물을 나오게 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내는 것처럼 착각하게 합니다. ‘우리가’라는 말을 강조해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모세와 아론이 물을 내어주는 것처럼 백성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내겠느냐?’에 강조점을 두면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오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너희를 위해’라는 단어를 강조해서 해석해보면 ‘그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 같은 사람들을 위해 물을 내줄 필요가 있겠느냐?’고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물을 가까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의 태도는 ‘너희는 물을 마실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물이 있어도 너희에게는 주고 싶지 않다’는 뉘앙스를 주는 것입니다. 모세의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모세의 행동에서 두 가지 문제가 발견됩니다. 첫째, 지팡이를 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지팡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 치라”고 하셔서 쳤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는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라”고 하셔서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사용한 방법을 절대화하고, 신성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통해 몇 번 역사하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앞에서 그 지팡이를 통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제는 “지팡이를 들고 말하라”고 하셨으니 말하면 되는 것인데 지팡이를 들고 쳤습니다. 두 번씩이나 분노하며 내리 쳤습니다. 모세는 분노했습니다.

다른 말씀을 보면 모세가 지상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민 12:3). 그러나 모세 인생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안에 있는 폭발적인 분노의 패턴에 주목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40세까지 바로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모세가 40세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동쪽 히브리인을 이집트인 노예 감독이 때리는 것을 보고 분노해서 그 감독을 때려죽였습니다. 그때부터 모세 안에 폭발적인 분노가 있었던 것입니다. 동쪽을 보호하려는 선한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분노였습니다. 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할 때 그 금송아지를 부수 가루를 만든 다음 물에 뿌려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과도한 분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돌판을 깨뜨렸으니 다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돌판 두 개를 처음 것처럼 깎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는데 이제는 모세에게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돌판을 깎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노의 대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생애를 보면 때때로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과격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마지막 시점에서도 그 문제가 나타난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이라면 이렇게 다루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모세의 위치로 봤을 때 이것은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지도자의 분노는 마치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두 번 내리치며 백성들을 향해 분노하는 모세의 얼굴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가 불필요한 분노를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마음에 있는 분노는 물론 죄성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부모가 심어준 분노일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오를수록 자신의 분노가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역사를 변화시키는 ‘선한 분노’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으니 너희가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곳을 그리바 물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서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셨습니다.”(12~13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분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죄와 악에 대하여, 분노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도록 분노하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분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간다면 선한 분노입니다. 계속해야 하는 분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노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악한 분노입니다. 동기는 선했을지라도 그 방식이 인내와 용서와 긍휼과 같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면 그 분노 또한 악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동기가 선하다고 모든 것을 합리화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역사를 변화시키는 분노는 악한 분노가 아닙니다. 마틴 루터 킹, 윌리엄 월버포스 등 역사를 변화시킨 선한 분노를 보십시오. 31운동에서 우리 조상들이 만세를 불렀던 그 동기가 선했고 표현 방식도 선했습니다. 역사를 변화시키는 분노는 언제나 선한 분노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분노였습니다. 우리의 분노가 미움, 폭력, 복수가 아니라 인내와 용서와 친절과 긍휼, 노하기를 더디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날마다 분노의 동기를 살피고, 성령 안에서 절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특별기교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나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이다. 여름은 더위와 높은 습도 등으로 생리기능에 이상이 생겨 면역력이 깨지기 쉽고, 체력이 고갈되기 쉬운 계절이다. 이로 인해 쉽게 피로해지는 것도 문제이다. 무엇보다 여름은 세균 등 미생물이 쉽게 번식해서 식중독, 비브리오 패혈증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계절이기도 하다.

안전관리분과위원회에서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서 여름철 대표적 질병과 그 예방법, 국내외 아웃리치 안전관리 요령을 소개하고자 한다.

여름철 건강관리 요령

여름철 대표적인 질병으로는 식중독, 일사병, 냉방병 등이 있다. 식중독은 오염된 음식물 섭취로 인해 발생하는 소화기계 증후군을 말한다.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인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를 생활화하면 식

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일명 ‘더위 먹은 병’이라 불리는 일사병은 햇볕에 장시간 노출되면 걸릴 수 있다. 원인은 염분과 수분 부족이다. 규칙적인 수분 섭취가 필요하고, 서늘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게 중요하다. 땀다고 얼음물을 벌컥벌컥 마시기보다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게 좋다.

실내의 온도차를 적정하게 유지해서 냉방병을 예방하는 것도 필요하다. 에어컨 적정 온도를 25~26도로 맞추고, 실내의 기온차가 5~6도를 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한다. 더운 여름에는 체력소모가 커지면서 온몸이 처지고, 더위로 인해 피로감이 두 배나 더해진다. 따라서 비타민과 단백질을 잘 챙겨먹어 체력을 보충하는 게 중요하다.

아웃리치 안전관리 요령

올 여름에도 온누리교회 성도 약 9천여 명이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를 실행하기

위해서 국내외로 아웃리치를 떠난다. 아웃리치 지역은 문화가 다르고, 기온 등 제반 여건이 익숙하지 않아서 건강과 안전에 주의할 기울여야 한다.

국내 아웃리치 및 수련회를 갈 때에는 숙소 및 행사장의 안전을 점검해야 한다. 정식 허가를 받은 곳인지, 취사장과 세면장, 화장실 등은 깨끗한지, 폭우로 인해 하천이 범람하거나 산사태가 발생하기 쉬운 곳인지, 조명, 음향, 무대, 전기 등 설비는 안전한지, 야생동물이 출몰하는 곳인지 등도 점검해야 한다. 이동수단(버스) 점검도 필요하다. 임차버스 차령 5년 이하, 적정보험 가입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무엇보다 사전교육이 필수다. 물놀이나 가스 안전수칙, 식중독 혹은 일사병에 대한 대비방법이나 사전교육을 실시해서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해외 아웃리치의 경우에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아웃리치팀과 팀원들이 아웃리치 목적 및 특성, 내용에 대해 충분

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현지의 기독교 현황, 국민 정서, 기후 등에 대한 사전정보 확인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현지 협력기관(선교단체 또는 NGO 등)에 대한 점검도 필수다. 현지 상황에 대해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정보망을 확보하고 있는지,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대응능력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출국 전 각 나라 풍토병에 대비한 예방접종도 잊지 말고 해야 한다. 여행자보험에 일괄 가입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국내외 아웃리치를 떠나는 성도뿐만 아니라 교회와 각 가정에서 기도로 지원하는 성도들을 위한 여름철 건강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알아보았다. 잘 숙지하고 지침으로써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정 및 교회공동체의 건강도 좋아지기를 바란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여름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 온누리교회 안전관리분과위원회

Acts 29

게시판

2019년 7월 14일(주일) | 제1254호

14 온누리신민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3부 오전 11:30 본당
4부 오후 1:50 본당
5부 (심자가의 길) 오후 4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본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본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성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최용준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532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홀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아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홀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홀

문의: 김중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년·청소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성철 집사(010-3660-7135)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3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

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라주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4: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방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

이브 주일 11:00 2F Library / 다문화 예꿈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

케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

일 13:00 Peace 305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

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

예배 주일 9:30 301호/네팔어 주일 10:3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평택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집사(010-2539-5665)

나지원 팀장(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모임(살롬이스라엘)

일시: 매주 토 오전 8시~10시

장소: 서빙고 시온홀

문의: 010-8550-7930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인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용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튼은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관 301호

문의: 김명지 간사(010-5017-3146)아프

가니스탄 중보 기도모임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 12:30

장소: 선교관 1층 미션홀

문의: 이신숙 집사 010-3212-2664

일.하.세. GUM예배

시간: 매주 토요일 8시 30분

장소: 서빙고 캠퍼스 선교관 101호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오전 10:30 신관 4층 누리홀

온누리가족 나무동산(공원요역) 잔여

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착)

동산위치: (재)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잔여수량 70기)

문의: 서충관 팀장(02-3215-3176)

어린이창조과학스쿨

일시: 7월 20일 오전 10시~오후 1시

장소: 서빙고 캠퍼스 한동홀

대상: 초등학생 40명(선착순)

신청: <https://forms.gle/uWoRv4nb25Udxcu7>

문의: 010-6284-8479(오후 2시 이후 상담)

일대일 양육자반 모집-육동전 장로반

일시: 7월 28일~11월 10일 매주일

오전 8:10~10:00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403호

신청: i-School

문의: 02-3215-3220

일대일 심화과정 Make-up3

일시: 8월 11일~18일 매주일

오전 8:10~10:00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선교관 402호

신청: 문자(010-9265-1532)

문의: 02-3215-3220

더멋진세상 해외봉사단 모집

분야: 교육, 보건 기간: 1년

문의: 이기일PM 02-2271-2246

홈페이지 참고(www.abetterworld.or.kr)

양재

02.573.9686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채폴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은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팡: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렘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Cristian Neira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은유홀

문의: 010-4924-2703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

CGNTV

여행의 떠나보면 알게되는 이유

하나님께 집중하는 묵상여행
'떠남'에서 시작되는 회복의 시간



인생의 힌트를 발견하는 '제주도 뚜벅이 여행' 가수 홍대광 편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20분 방송



정기후원 [KEB하나은행 573-910002-67804] ARS 060-700-1660 문의 02-796-2243